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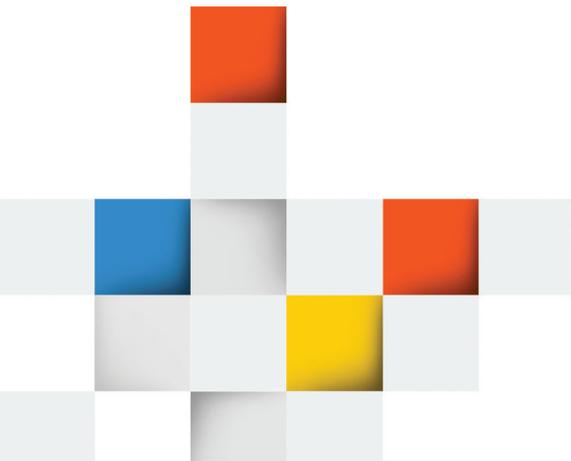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100003-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4
<https://kostat.go.kr/asdk/> 2024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독거노인의 안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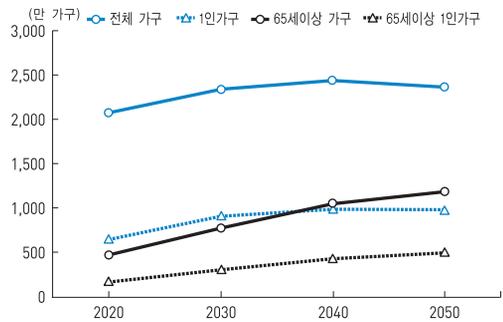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2년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연간손상경험률¹⁾은 7.2%로, 전체 노인 인구(5.7%)보다 높게 나타났다.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체 노인 안전사고는 2만 5,016건이며, 노인 낙상사고는 63.5%에 달한다. 노인 낙상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머리 및 얼굴 부위가 위해정보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 전체 노인 학대피해의 14.8%가 독거노인에 해당하며, 독거노인의 주요 학대피해 유형은 정신적 학대(34.3%), 신체적 학대(29.1%), 방임(13.6%) 등이 높았다.
- 독거노인의 증가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독거노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과 안전한 지역사회의 거주환경개선 등에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46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2.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은 162만 가구로 전체 가구(2,073만) 중에 7.8% 해당

하며, 2050년 493만 가구로 2020년에 비해 2.9배 증가할 전망이다(그림 X-35).

[그림 X-35] 65세 이상 1인 가구 전망, 2020-2050



주: 1) 2020년 기준 추계 가구 수를 나타내며 외국인 가구는 제외한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한 가구 수입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각 연도.

이러한 독거노인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독거노인이 당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험,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으며, 범죄, 거주 환경 등으로 인해 안전에 더 높은 위험으로 노출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불안과 위협에 대처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1) 1세 이상 조사응답자 수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자 수 비중을 의미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1인가구의 안전에 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손상발생 및 경험, 범죄피해, 노인 학대 피해 경험, 사회적 안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독거노인의 안전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노인의 기준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고자 하나, 10세 단위로만 이용 가능한 일부 통계는 60세 이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독거노인의 손상 발생 경험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개인의 손상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2022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연령대와 가구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간손상경험률을 분석하였다. 연간손상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2년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연간손상경험률은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3인가구의 연간손상경험률이 7.6%로 가장 높지만,

〈표 X-6〉 가구원 연령 및 가구원수별 연간손상경험률, 2022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전체
65세 이상	7.2	4.6	7.6	6.4	5.7
19세 이상	7.1	6.9	5.2	4.7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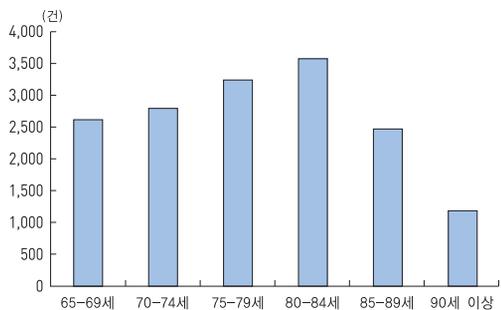
주: 1) 2022년 기준 가구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비율임.
 2) 연간손상경험률=최근1년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비율.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2022.

65세 이상 1인가구의 연간손상경험률이 65세 이상 전체의 연간손상경험률인 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손상에 대한 상대적인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표 X-6).

위에서 제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독거노인의 손상 발생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독거노인에 해당하는 손상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고령자 전반에 대한 안전사고 원인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하여 노인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2022년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 분석」(2023.8.)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2년의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노인 안전사고는 2만 5,016건으로, 63.5%(1만 5,888건) 낙상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사고를 연령

[그림 X-36] 연령별 노인 낙상사고 접수건수, 2019-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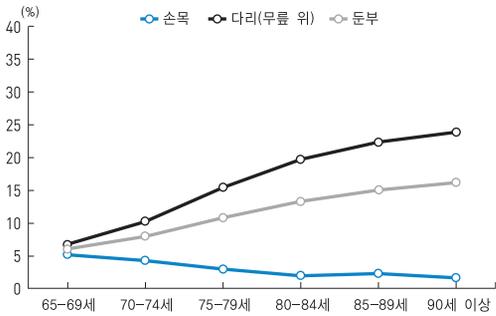
주: 1) 2019년~2022년의 접수 건수.
 출처: 한국소비자원,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이 낙상사고로 나타나」 보도자료, 2022.8.



별로 보면, '80세~84세'의 낙상사고 접수건수가 3,573건으로 가장 많았다(그림 X-36).

4년간(2019년~2022년) 노인 낙상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1만 1,742건)하였고 특히,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8,116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사고로 발생한 손상은 '머리 및 뇌(20.9%)' '다리(무릎 위)(15.7%)', '둔부(11.1%)'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고령으로 갈수록 다리(무릎 위) 손상 비율이 높아지는데, 낙상사고 발생 시 손목으로 몸을 지지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상황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X-37).

[그림 X-37] 낙상사고에 따른 연령별 위해부위 비율, 2019~2022



주: 1) 2019년~2022년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수.
 2) 비율은 연령별 낙상사고에 대한 비율임.
 출처: 한국소비자원, 「2022년 고령자 위해정보 동향 분석」,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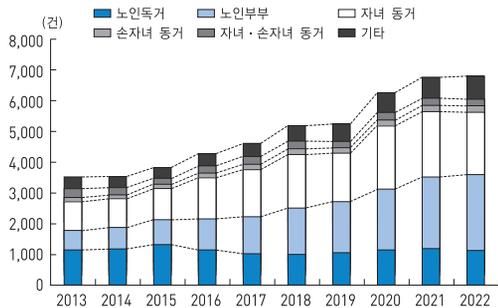
독거노인의 학대피해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3)의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는 2022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1만 9,552건의 전체 사례 중 일반사례(12,745건)를 제외한 학대 사례(6,807건)에 대해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노인학대 피해는 6,807건으로 2013년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 가구와 자녀동거 가구에서 학대피해노인 발생이 각각 2,467건, 2,034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독거노인의 경우에도 1,127건으로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학대피해 사례는 2015년 34.5%를 정점으로 하여 이후 지속해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X-38).

[그림 X-38] 가구유형별 학대피해노인 신고접수 건수,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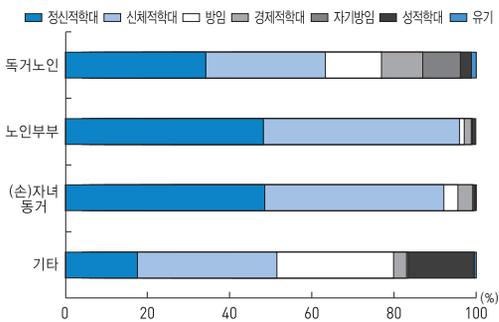


주: 1)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사례를 단순 집계한 수치임.
 2) 노인복지법에 따라 18년 1월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그 이전은 만 65세 미만도 포함된 수치임.
 3) 유형별 현황 수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므로 단순비교에 유의.
 출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3, p38.

2022년 노인학대 현황을 학대 유형별로 보면, 정신적 학대 4,561건(43.3%), 신체적 학대 4,431건(42.0%), 방임 689건(6.5%), 경제적 학대 397건(3.8%), 성적 학대 259건(2.5%), 자기방임 169건(1.6%), 유기 36건(0.3%)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노인의 39.0%가 노인부부 가구, 30.7%가 자녀동거 가구에 해당하며, 독거노인인 경우는 14.8%에 해당한다. 독거노인이 당하는 주요 학대 유형을 보면, 정신적 학대(34.3%), 신체적 학대(29.1%), 방임(13.6%), 경제적 학대(10.0%) 등이 높았다(그림 X-39).

[그림 X-39] 가구유형별 노인학대 유형, 2022



주: 1)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6,807건)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만 542건)에는 차이가 있음.
 2) (손)자녀동거는 자녀동거, 손자녀동거, 자녀+손자녀동거를 합산한 수치임.
 출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3, p91.

노인학대를 장소별로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86.2%)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1.6% 감소하였고, 생활시설 및 병원에서의 노인학대는 전년 대

비 각각 23.5%, 38.7%로 증가했다(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3, p34)(그림 X-40).

[그림 X-40] 노인학대 발생장소,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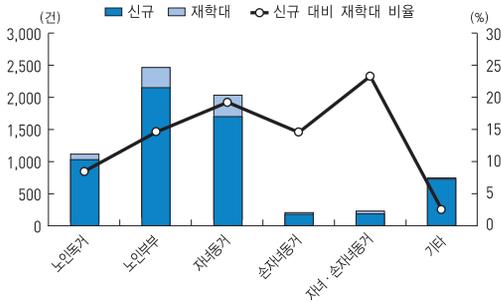
주: 1) 노인복지법에 따라 18년 1월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그 이전은 만 65세 미만도 포함된 수치임.
 2) 유형별 현황 수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므로 단순비교에 유의.
 출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3, p38.

참고로, 학대피해 노인 중 치매진단을 받은 사례는 1,170명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치매진단노인학대 중 97.5%가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를 재학대 사례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재학대 사례는 817건으로 전체 노인학대 사례 중에 12.0%에 해당된다. 특히 독거노인의 재학대 사례는 전체 재학대 중에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례의 경우도 전체 신규사례 중에 17.3%가 독거노인에서 발생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X-41).



[그림 X-41] 가구유형별 노인학대 재학대 현황, 2022



주: 1)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
출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3, p197.

독거노인의 범죄피해

독거노인의 범죄피해비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민생활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만 14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율을 살펴보고, 범죄의 취약성 요인 및 범죄현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2020년 원자료를 활용하여 60세 이상 1인 가구의 범죄피해율을 분석하였고, 가구원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공개된 원자료의 연령대 구분이 10세 단위로 제공되므로 노인 기준인 65세 이상이 아닌 60대 이상 또는 60대와 7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X-7〉에서는 60세 이상 가구원을 1명이 라도 포함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수별 60세 이상 가구원의 범죄피해율을 살펴보았다.

범죄유형에 상관없이 1건 이상의 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인 가구는 4.9%, 2인 가구와 3인 가구는 4.2%, 4인 이상 가구는 3.1%로, 2인 이상 가구의 60대 이상 가구원에 비해 1인 가구에 서의 총 범죄피해 비율이 더 높았다(표 X-7).

〈표 X-7〉 60세 이상 가구원의 가구원수별 총 범죄피해율, 2020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전체
피해율 (%)	4.9	4.2	4.2	3.1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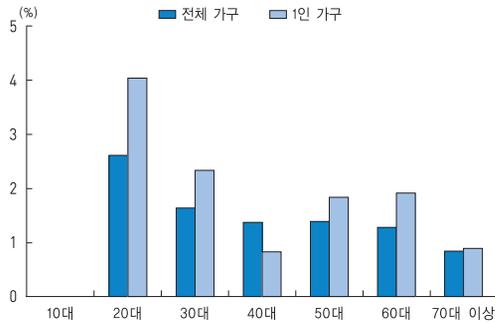
주: 1)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하고, 중복가구원을 제외함.
2) 60세 이상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함.
3) 범죄피해율(%)=해당 가구원수별로 (60세 이상 범죄피해 1건 이상을 경험한 60세 이상 인구)/(60세 이상 인구)×1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원자료, 2020.

범죄피해 중에 신체피해와 재산피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60대 전체 가구의 신체피해는 1.3%이었으나 60대 1인 가구는 1.9%로 해당 연령대의 평균 피해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60대 전체 가구의 재산피해 비중이 4.4%인 반면 60대 1인 가구의 재산피해 비중은 5.5%로, 해당 연령대의 평균보다 1인 가구의 피해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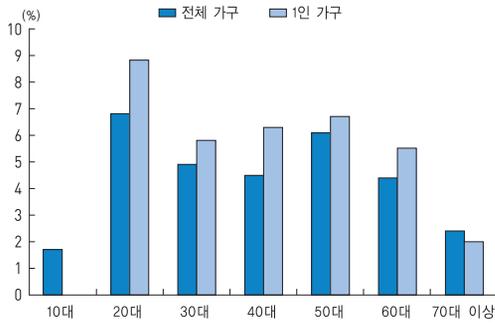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자살충동 및 시도 등을 겪게 될 수 있다. 범죄로 인하여 이러한 정신적

[그림 X-42] 연령 및 1인가구 여부별 범죄피해 비중,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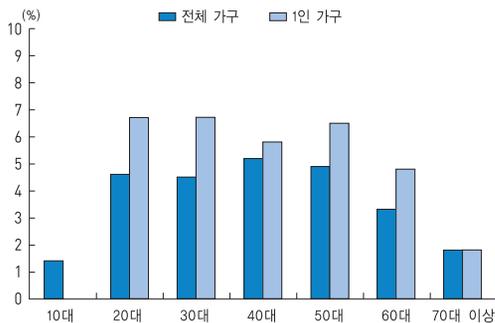
1) 신체피해



2) 재산피해



3) 정신적피해



주: 1)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2) 신체피해비중(%)=(해당연령대 및 해당가구에서 신체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가구원/해당 연령대 및 해당가구의 전체 가구원)*100.
 3) 재산피해비중(%)=(해당연령대 및 해당가구에서 재산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가구원/해당 연령대 및 해당가구의 전체 가구원)*100.
 4) 정신적피해비중(%)=(해당연령대 및 해당가구에서 정신적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가구원/해당 연령대 및 해당가구의 전체 가구원)*100.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원자료, 2020.

피해를 최소 1개 이상 겪게 된 경우는 60대 전체 가구에서는 3.3%이었으며, 60대의 1인 가구에서는 4.8%가 정신적 피해를 최소 1개 이상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X-42).

독거노인의 범죄 취약성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해 두려워하는 전체 가구의 비율은 약 11.0%이었다. 이때 두려움 비율은 “두려운 편이다”와 “매우 두렵다”의 합산 값이다. 60대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비율은 10.8%, 70대 이상 범죄에 대한 두려움 비율은 10.3%이었으나, 60대 1인 가구의 경우는 14.1%, 그리고 70대 이상 1인 가구의 경우는 11.7%로 나타나, 노인 1인 가구에서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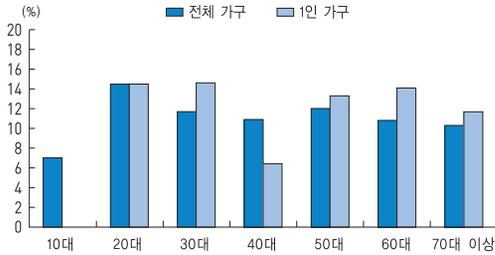
자신의 범죄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에서 “높은 편이다”와 “매우 높다”를 합산하여 범죄피해 가능성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자신의 범죄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전체 가구의 비율은 8.3%이었고, 60대의 경우 8.7%, 70대 이상의 경우는 11.4%이었다. 이에 반해 60대 1인 가구가 자신의 범죄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5.2%, 70대 이상 1인 가구는 14.0%로 전체 응답 비중보다 자신의 범죄 취약성을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피해 결과가 다른 사람에 비해 오래갈 것이다”로 설문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21.3%가 다른 사람에 비해 오래 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연령대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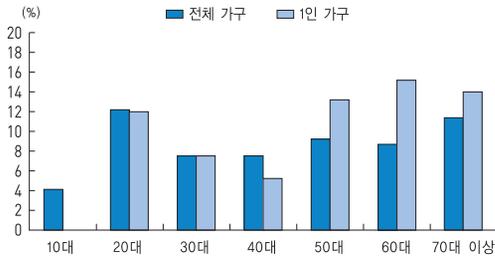


[그림 X-43] 연령 및 1인가구 여부별 범죄취약성 비중,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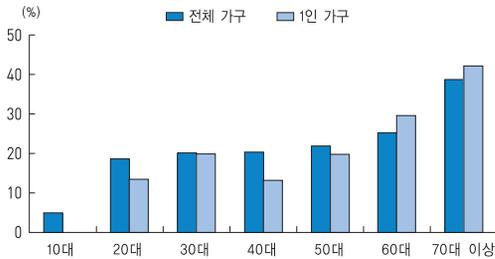
1) 범죄두려움



2) 범죄피해 가능성



3) 범죄피해 결과 지속



- 주: 1) 가구원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2) 범죄를 두려워하는 비율은 "두려운 편이다"와 "매우 두렵다"의 합산 값임.
 3) 범죄두려움(%)=(해당 연령대의 범죄두려움/해당연령대 가구원수)*100.
 4)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와 "매우 높다"의 합산 값임.
 5) 범죄피해가능성(%)=(해당 연령대의 범죄피해가능성/해당연령대 가구원수)*100.
 6) 범죄피해결과와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와 "매우 높다"의 합산 값임.
 7) 범죄피해결과지속(%)=(해당 연령대의 범죄피해결과 지속/해당연령대 가구원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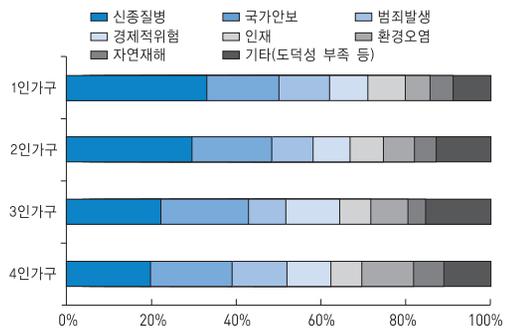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원자료, 2020.

보면, 60대에서는 25.2%가 범죄피해 결과가 오래갈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특히 60대 1인 가구의 경우 29.5%로 더 높게 나타났다(그림 X-43).

독거노인의 사회적 불안요인 및 대처방안 인지 수준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요인이 33.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국가안보가 17.0%, 범죄발생이 12.0%, 경제적 위험이 9.0% 등의 순이었다(그림 X-44).

[그림 X-44] 65세 이상 가구원 포함 가구원수별 사회안전 불안요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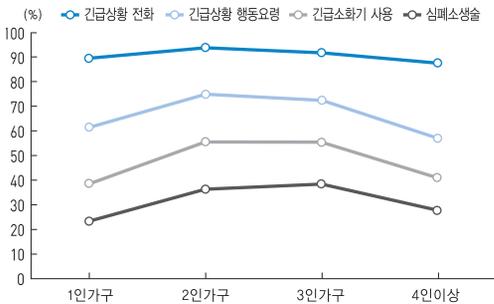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22.

독거노인이 다양한 위험요인에 처해질 경우 안전을 위한 대처방안을 인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 긴급상황전화, 긴급상황 행동

요령, 긴급소화기 사용, 심폐소생술 이용에 대한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65세 이상 1인 가구에 대해 살펴보면, 긴급상황 전화를 인지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89.5%로 인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긴급상황 행동요령을 인지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61.5%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긴급소화기 사용을 인지하는 가구 비율은 38.7%에 머물러 있어 화재위험에 대한 안전 대응 요령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방법을 인지하는 가구 비율은 23.5%에 불과하여 응급상황 발생 대응에 취약성을 보였다(그림 X-45).

[그림 X-45] 65세 이상 가구원 포함 가구원수별 사회안전 대처방안 인식, 2022



주: 1) 사회안전 대처방안 인지는 "아주 잘 안다"와 "잘 안다"의 합산 값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22.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상황 대처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2020년부터 “응급

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즉,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 차원에서 지원되는 서비스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여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 Issue Paper」, 2023.9.11.).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맥내 장비는 2008년 최초 보급되었으며, 2020년부터 차수별로 신규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2023년 전국에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맥내 장비는 총 23만 8,806가구이며, 이 중 노인가구 설치 비율은 95.2%(22만 7,328가구)이다(표 X-8).

<표 X-8>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맥내 장비 설치 가구 수, 2022-2023

(단위: 건, %)			
구분	계	노인	장애인
2022년	173,842 (100.0)	164,796 (94.8)	9,046 (5.2)
2023년	238,806 (100.0)	227,328 (95.2)	11,478 (4.8)

주: 1) 독거노인 외에 장애인, 노인 2인, 조손 가구가 일부 포함된 수치임.
2) 맥내 장비는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로 구성되어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2024.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맥내 장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면서 2023년 응급통화가



17,954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화재감지는 6,836건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 전체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이 더 많은 응급상황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X-9).

〈표 X-9〉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응 건수, 2022-2023

구분	화재감지	응급통화	활동 미감지	계
2022년	6,265	17,950	147,558	171,773
2023년	6,836	17,954	130,583	155,373

주: 1) 독거노인 외에 장애인, 노인 2인, 조손 가구가 일부 포함된 수치임.
출처: 보건복지부, 「혼자 사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2024.4.

맺음말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독거노인의 안전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간손상경험률에서 65세 이상 1인 가구에서의 손상에 대한 상대적 취약성이 높았고, 그리고 학대피해 경험에서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 정신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에서 학대 피해 경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범죄피해율도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1인 가구에서의 피해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거노인의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신종질병-국가안보-범죄발생-경제적 위험 등에 대한 불안요인이 가장 높았으나,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고 있는 경우가 다소 낮았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화재위험에 대한 안전대응요령과 심폐소생술 인지에 취약성을 보였다.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1인 가구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므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거노인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어려움을 지니게 되며, 특히 신체적·환경적·경제적 안전 영역에서 매우 취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과 지역사회의 거주 환경 개선 등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3.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 Issue Paper: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2023.9.11.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2.8.30.)